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미국의 고금리 '영구히' 지속될 수 있다
- Bloomberg: 전 세인트루이스 은행총재, “강한 성장이라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할 수도”
- Bloomberg: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올해 1월 이래 최저... 20만1천건

[미국 금융]

- WSJ: 미 가구들, 장기적인 금리 인상 여파 느끼기 시작

[뉴욕]

- CNBC: 뉴욕시 지하철 운행 힘들다... 탑승자 부족 탓

[COVID-19]

- CNBC: 연방 정부, 무료 코비드 테스트 기기 배포... 다음주 월요일

[물류 참고]

- WSJ: 산업용 창고 수요 여전히 살아있다

[자동차 파업]

- WSJ: 파업 UAW, “임시직 근로자 의존도 줄여라”
- CNBC: GM과 스텔란티스, 파업 여파로 2 천 여명 해고하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아마존과 타겟, 연휴에 맞춰 수천 명 고용 예정
- CNBC: 애플, 애플워치 생산에 3D 프린팅 기술 도입
- WSJ: FedEx, 수요 감소에도 영업이익 상승
- WSJ: Cisco, 280억에 사이버보안 Splunk 인수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Higher Interest Rates Not Just for Longer, but Maybe Forever

미국의 고금리 '영구히' 지속될 수 있다

- 연준은 어제 수요일 당초 예상보다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 시장을 놀라게했다.
- 일부 연준 관리들은 고금리가 더 오래갈 것이라기 보다는 아예 '영구히' 지속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 좀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간이 가면서 인플레이와 실업률을 안정화시키는 이른바 중립 금리가 상승했다. 이는 10년 이상의 장기 금리에 의존하는 투자자, 기업체, 가계들에 중요한 사안이다. 이는 지난 수개월 동안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한 이유와 주식이 흔들렸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현재 금리가 수요나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지 않는다면 중립 금리는 더 높아야 하고 통화정책은 긴축적이지 않은 것이다.

WSJ 기사

Bloomberg: Bullard Says Rates May Need to Rise Further Amid Strong Growth

전 세인트루이스 은행총재, “강한 성장이라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할 수도”

- 전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인 James Bullard는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는 리스크를 막기위해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현재 퍼듀대학 비즈니스 스쿨 학장인 그는 “특히 근원 인플레이션이 계속 적절한 속도로 하락하여 연준이 합리적으로 2%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Jobless Claims Fall to 201,000, Lowest Level Since January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올해 1월 이래 최저... 20만1천건

-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해 1월 이래 가장 낮아 노동시장이 경제를 계속 뒷받침하는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 9월 16일 끝나는 주의 청구 건수는 2만건 줄어든 20만1천건으로 50여년 만에 매우 낮은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연방 노동청 통계는 오늘 목요일 밝혔다.
-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전체 건수는 9월 9일 까지 주간 1백66만건으로 떨어져 이것도 올초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How U.S. Households Got Turned Upside Down by Higher Interest Rates

미 가구들, 장기적인 금리 인상 여파 느끼기 시작

-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미 가구들은 이에 따른 여파를 느끼기 시작했다.
- 새로 주택 구입을 할 경우 월 모기지 때문에 또한 자동차 용자를 받아야 하는 이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애틀랜타 연준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중간 가격 주택 매월 지불액은 미 중간 소득의 43.2%에 해당한다는 것.

- 고금리 신용 카드 부채자들도 타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 당장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WSJ 기사

[뉴욕]

CNBC: Why NYC's subway is struggling 뉴욕시 지하철 운행 힘들다... 탑승자 부족 탓

- 하이브리드 근무로 뉴욕시 지하철 탑승자가 줄어든 상태라 운영 기관인 MTA의 요금을 통한 수입이나 매출이 떨어진 상태다.
- 올해 6월 주중 탑승객은 평균 3백60만명으로 팬데믹 전에 2019년의 5백 50만명에서 크게 감소했다.
- 더욱이 최근 인플레이와 지하철 범죄도 탑승 숫자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CNBC 기사

[COVID-19]

CNBC: U.S. will again offer free at-home Covid tests starting Monday 연방 정부, 무료 코비드 테스트 기기 배포... 다음주 월요일

- 코비드 바이러스가 미 전역에 더욱 강해지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 가구들에 무료 테스트 기구를 배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무료 COVIDtests.gov를 이용해서 연방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 정부는 지난해 1월 이래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 테스트 키트를 제공했었는데 테스트 공급품을 절약하기 위해 6월 1일에 무료 제공을 중단했다.

CNBC 기사

[물류 참고]

WSJ: How Warehouses Are Escaping Real Estate's Doom Loop, in Charts 산업용 창고 수요 여전히 살아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부터 제3자의 물류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신규 창고 공간의 임대를 줄이고 있다. 화물 수요가 줄고, 고금리에다 소비자 지출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하이브리드에 따른 상업용 빌딩 수요와의 달리 산업용 부동산 시장은 지난 3년간의 열광적인 확장세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둔화되지 않았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용 가능한 창고의 양은 역사적으로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 세계 최대의 산업용 부동산 소유기업인 Prologis에 따르면 확장을 원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여전히 높다고 말한다. 기업들이 여전히 재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WSJ 기사

[자동차 파업]

WSJ: UAW Pushes for Automakers to Cut Reliance on \$16-an-Hour Temp Workers**파업 UAW, “임시직 근로자 의존도 줄여라”**

- 디트로이트 자동차 기업들이 임시직을 고용한 정책은 전미자동차노조(UAW)에 골치거리였다. 이들은 임시직이 즐고 풀타임 고용으로 회사들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 그러나 기업들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전기차로의 전환과 변동이 심한 생산 관리를 위해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임시직 근로자 문제는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이 7일째에 접어들면서 협상에서 핵심 사안이 되고 있다.

WSJ 기사

CNBC: GM and Stellantis just laid off more than 2,000 additional workers because of the UAW's strike**GM과 스텔란티스, 파업 여파로 2 천 여명 해고하다**

- 제너럴 모터스와 스텔란티스가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때문에 추가적인 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 GM은 현재 파업이 진행 중인 Wentzville, Missouri 공장에서 생산되는 스탬핑(Stampings) 가공 공정에 차질을 겪고 있어 Fairfax와 Kansa의 공장이 멈춰 섰고 대략 2천여 명의 이곳 근로자들이 해고됐음을 어제 수요일 발표했다.
- 같은 날, 스텔란티스는 파업과 관련된 재고 문제로 인해 Ohio와 Indiana에 있는 세 부품 공장의 직원들 370여명을 해고했다고 발표했다.
- GM은 성명을 통해, “파업에서 누구 얻을 것이 없으며, Fairfax 직원들의 해고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최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WSJ: Amazon, Target to Hire Thousands of Workers Ahead of Holiday Season****아마존과 타겟, 연휴에 맞춰 수천 명 고용 예정**

- 아마존과 타겟이 바쁜 연휴 쇼핑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수천 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마존은 이번 가을에 이미 25만명의 직원을 고용했으며 이는 작년의 목표치보다 15만명 많은 수치이다. 또한 올해 미국에 50개 이상의 새로운 주문 처리 센터와 기타 시설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 타겟은 어제 수요일 작년 채용에 이어 올해에도 10만 명의 시즌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은 매장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도울 것이며, 일부는 회사 공급망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시즌 근무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CNBC: Apple reportedly tests 3D printing to manufacture the new Apple Watch**애플, 애플워치 생산에 3D 프린팅 기술 도입**

- 애플이 3D 프린팅 기술을 앞으로 출시될 애플워치 시리즈 9 생산 적용에 테스트중에 있다고 말했다.
-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의 초기 테스트가 잘 끝난다면, 3D프린트 기술이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 그러나, 애플은 아직 애플의 맥북과 아이패드 라인업에 사용되는 3D 프린팅 알루미늄 인클로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CNBC 기사

WSJ: FedEx Earnings Rise Despite Weakened Demand**FedEx, 수요 감소에도 영업이익 상승**

- FedEx의 이익이 매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분기에 상승했다. 이는 FedEx가 둔화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범위한 비용 절약 노력을 했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 기업 임원들은 가을 연휴와 크리스마스에 앞서 업계가 일반적으로 가장 바쁜 시기이며, 평소보다는 조용한 피크 시즌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 Fedex는 익스프레스와 그라운드 사업부를 통합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를 통해 2년간 40억 달러의 절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회계연도 1분기에서 통합부서인 익스프레스와 그라운드 사업부의 마진이 증가했다고 수요일에 밝혔다.

WSJ 기사

WSJ: Cisco to Buy Cybersecurity Company Splunk in \$28 Billion Cash Deal

Cisco, 280억에 사이버보안 Splunk 인수

- 시스코 시스템이 분석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인 Splunk를 인수하기 위해 280억 달러 계약을 맺었다. 이는 시스코가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추세에 더 나아가기 위한 배경으로 보인다.
- 세스코는 이번 거래로 세상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기업중 하나가 될 것 예정이며, 2024년 9월 말까지 예상되는 인수가 끝나면 첫 해 안에 현금 흐름이 즉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스코의 주가는 대략 4% 정도 감소해 주당 53.22달러를 기록했지만, Splunk의 주가는 26% 상승해 주당 145.19달러를 기록했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미국 고금리, 더 오래 갈뿐만 아니라 끝없이 굳어질 수도"

WSJ "연준, 중립금리 상승 예상"...추가 인상 근거 가능성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관계자들은 20일(이하 현지시간) 금리가 이전에 기대하던 만큼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시장을 놀라게 했다.

연준의 이 같은 입장으로 미뤄 현재의 높은 금리가 단지 더 오래 갈 뿐만 아니라 아마도 영원히(forever) 지속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관측했다.

WSJ은 연준 관계자들 전망이나 논평을 볼 때 금리가 아마 끝없이 더 높은 수준에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금리가 장기화를 넘어 끝없이 굳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